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2. 예배 후 사무엘 상 성경공부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3. 오늘은 어머니주일입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들 위해 축복하고 격려해 주세요.
4. 야유회 : 5월 20일 장소 상의 중 (오클론 팜 동물원, 케짐쿠직파크...)

| 지난 주 통계 | |
|---------|----------|
| 주일 헌금 | CD \$110 |
| 감사 헌금 | CD \$35 |
| 십일조 헌금 | CD \$115 |
| 장년 출석 | 12명 |
| 어린이 출석 | 15명 |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 승 용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연락처: 1-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www.dartmouth-k-church.com

어머니주일 예배 순서

| | | |
|--------|------------------|-------|
| 여는 기도 | | 김승용목사 |
| 찬양 | | 다함께 |
| 성경봉독 | 창 2:16-17, 3:1-6 | 김승용목사 |
| 어린이설교 | 하나님과의 약속 | 김승용목사 |
| 대표기도 | | 김승용목사 |
| 성경봉독 | 시편 37:1-9 | 다함께 |
| 설교 | 하나님의 백성의 삶! | 김승용목사 |
| 교회소식 | | 김승용목사 |
| 결단의 찬양 | | 다함께 |
| 축도 | | 김승용목사 |

(어린이교회) 창세기 2:16-17, 3:1-6

-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 여자가 뱀에게 말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시편 37:1-11

- 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3 여호와의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1)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4 또 여호위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베풀어 이루어 주시리로다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위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목회자 칼럼

살아가다보면 악한 이들이 성공하고 선한 이들이 마치 손해를 보는 듯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며 때때로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릴 정도로 낙담하기도 합니다. “신정론(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재미있게도 신앙의 거인들조차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성전에서 찬양인도를 맡았던 아삽은 ‘아무런 재앙도 없이 잘 살다가 심지어 잘 죽는 악인의 행동을 보고 질투가 나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잘 살도록 내버려두시나”고 따져 묻기조차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내린 이 고민의 답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시편 37편은 이 오랜 질문에 대한 다윗의 결론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앞서 이야기 드리다면 이것은 결코 깊은 성찰이 없이 성급하게 내놓은 얕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의 결론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절대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묻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놀라운 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리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기에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으며 의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시편 37편 1-6절까지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길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답은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의문에 온전한 답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악인들이 더 잘 사는 세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이 결론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외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한정된 시간에 국한하여 바라보며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을 갖다 보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악인들의 행태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성공적이었음을 대변해주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지금이,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죽을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겨울이 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름만을 보며 풀과 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손해보고 피해를 입고 놀림을 당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땅에 머무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성실을 따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뜻에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 때에 가릴 수 없는 정오의 빛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선을 행하고 고난 받은 자의 삶이 복되다”는 권선징악과는 너무나도 다른 역설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여기까지 고민하고 답을 찾아간 이들은 한 걸음을 더 내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에 대한 답을 시편 37편 25절에서 내놓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사항을 보지 못하였도다.” 역대기의 지루하게 이어지는 족보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증거이며 지금까지 쌓인 인류의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다스리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손해를 보는 인생을 산다고 해서 악인들이 지금 조금 더 행통하고 편안하고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직하고 진중하며 느린 듯 보이나 결코 멈추지 않고 세상에 허탄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여호와와의 성실하심을 좇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 정오의 빛처럼 빛나는 삶입니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

677.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Draw Me Close

Kelly Carpenter
경배와 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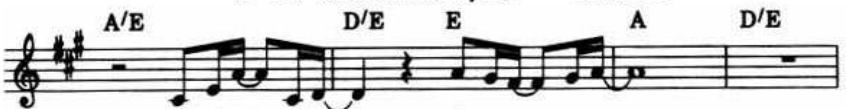
주님 곁-으로 - 날 이끄-소서 -
나의 참-소망 - 그 무엇-과도 -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
바꿀 수 없-는 주-사랑 -
I lay it all - down again
'Cause nothing else Could take your place



주 음성 들-기원 -하네 -
그 품 안에-나안 -기리 -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주님의-길로 - 인도하-소서 -
Help me find the way Bring me back to you



주님-만이 - 내모-든 것 - 되시-니-
You're all I want You're all I've ever needed



주님-만을 - 더알게하소서 -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최용덕



내가 걷는 이 길이 - 혹 굽어 도는 -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 가슴 아파도 - 내



마음속으로 -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 하나 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 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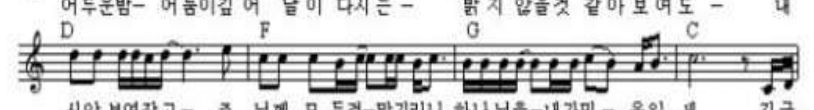
세은 계획이 - 꼭 빛나갈지 모르며 - 나의 희망 없었어 - 스러질 수 있지만 -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 주께 서 내가 - 가이 할 일을 할 아 - 심일세 -



어두운 밤 -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 내



신앙 부여받고 - 주님께 모든 것 - 맡기리니 하나님을 - 내가 믿 - 음일 세 지금



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 너무 멀리 - 가을 가을 - 어른거려도 -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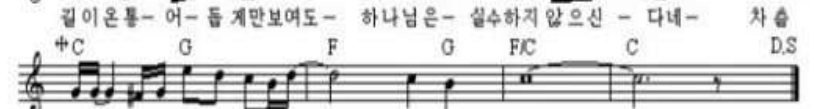
이어 - 오라 - 나 두려워 - 아니 하리 - 만 - 사람 주님께 - 내 어말 기리 - 차츰



차츰 - 안개는 걷히고 - 하나님 지으신 - 빛이 뚜렷이 보이리 라 - 가는



길이 온통 - 어 -둠 계만 보여도 - 하나님은 - 실수하지 않으신 - 다네 - 차츰



님은 - 실수하지 않으신 - 다 - 네 -

찬양이 흐르는 카페 7집

<http://cafe.daum.net/iyada>

Above All

Lenny LeBlanc, Paul Baloche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know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id behind the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Copyright (C) 1999 Integrity's Hosanna! Musi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

What a Beautiful Name

Hillsong United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